

2006 레즈비언 보도 모니터링

레즈비언, 신문을 찢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인권정책팀

목 차

■ 펴내며	4
■ 레즈비언 보도 가이드라인	6
■ 레즈비언 보도 모니터링 통계	9
■ 레즈비언 보도 모니터링 통계 분석	12
1. 선정적인 보도	12
2. 혐오와 편견을 담은 보도	16
3. 공정치 못한 인용을 사용한 보도	21
4. 잘못된 용어를 사용한 보도	26
5. 차별을 비가시화한 보도	29
■ 2006 레즈비언 보도 경향	35
■ 좋은 기사/ 나쁜 기사	38
1. 좋은 기사	38
2. 나쁜 기사	41
■ 단체 및 사업 소개	46

펼 내 며

신문 속의 레즈비언들은 어떻게 보도되고 있을까? 평범하고도 작은 물음에서 시작된 모니터링 작업이었습니다. 백서를 기획하게 되면서 여러 번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레즈비언에 대한 기사가 손에 꼽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두 번째는 동성애 관련 기사들 속에 여전히 담겨져 있는 동성애 혐오증 때문이었습니다.

- 동성애자는 에이즈의 주범?
- 동성애자는 사회윤리를 저버리는 사회의 일탈자?
- 레즈비언들은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를 당해서?
- 레즈비언들은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이 나뉘는가?
- 10대 여성 동성애자들은 가출 청소년 문제인가?

위의 문장들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동성애 및 레즈비언 관련 신문기사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기사 속 문구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읽는 신문 기사에서 동성애에 대해 선정적이고 왜곡된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접한다면,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기회가 없는 이성애자에게 동성애자는 그야말로 에이즈의 주범이나 변태성욕자로 생각될 것입니다. 동성애자 역시 벽장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는 게 아닌 좌절과 괴로움을 느끼게 될 테고요. 더 나아가 레즈비언을 포함한 동성애자들은 사회 속에 평등한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일탈자’로서 주변부에 위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영향을 주게 되는 우리 사회의 언론보도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인권정책팀에서는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보도된 레즈비언 관련 기사)들을 분석하여 우리 사회의 주요언론인 신문에서

드러난 레즈비언에 대한 잘못된 표현 문제나 레즈비언 인권 측면에서 지양되어야 할 기사들을 선별하고 진단했습니다. 이 활동의 결과로서 《2006 레즈비언 관련 신문기사 평가 백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백서를 통해서 그동안 만연되어 온 언론의 동성애 혐오적 보도 문제에 대해 함께 평가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평가 백서의 기사 분석 범위는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도된 기사들이었다. 분석 대상 신문은 10개 종합 일간지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내일신문,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로 정하였다. 검색 용어는 “레즈비언/ 동성애/ 동성연애/ 퀴어/ 성적소수자/ 이반” 으로 정하였으며, 겹치는 기사가 없도록 확인, 검토하였다.

레즈비언 보도 가이드라인

1. 선정적인 보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1. 사진 또는 그림을 통해 기사의 선정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
- 1-2. 동성애가 동성을 향한 성적인 이끌림 또는 동성 간 성행위에만 집중된 것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 1-3.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구로 동성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1-4. 불필요한 성적 묘사를 통해 선정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

2.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배제한 보도를 해야 한다.

- 2-1.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 1) 동성애를 금지된 사랑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
 - 2) 동성애가 사회적인 금기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
 - 3) 동성간 성행위나 동성애가 에이즈의 유일한 혹은 주된 감염 경로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
 - 4) 동성애자의 권리 보장을 반대하거나 동성애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사회적인 해악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
- 2-2.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
 - 1) 동성애에 대한 불확실한 원인설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2) 동성애를 질병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3) 동성애를 일시적인 감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 4) 동성애를 사회 문제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

3. 공정치 못한 인용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3-1.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혐오를 유포해서는 안 된다.
- 3-2. 입증되지 않은 동성애 관련 연구 결과를 정설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
- 3-3. 종교계의 주장을 통해 동성애 혐오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
- 3-4. 예술 작품, 창작물의 내용을 빌어 혐오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 3-5. 일반 대중의 혐오를 그대로 싣거나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
- 3-6. 동성애에 대한 혐오적인 입장만을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

4. 동성애와 관련한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 4-1. 동성연애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4-2.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 4-3. 동성 간 성행위가 곧 동성애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

5. 차별을 은폐하거나 탈정치적인 보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5-1. 동성애를 비밀인 것, 사적인 것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 5-2. 동성애를 단지 개인적 취향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 5-3. 동성애를 단지 문화적인 코드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 5-4. 동성애를 낭만화시켜서는 안 된다.
- 5-5. 동성애자를 향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
- 5-6. 동성애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나 진보의 척도로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레즈비언 보도 모니터링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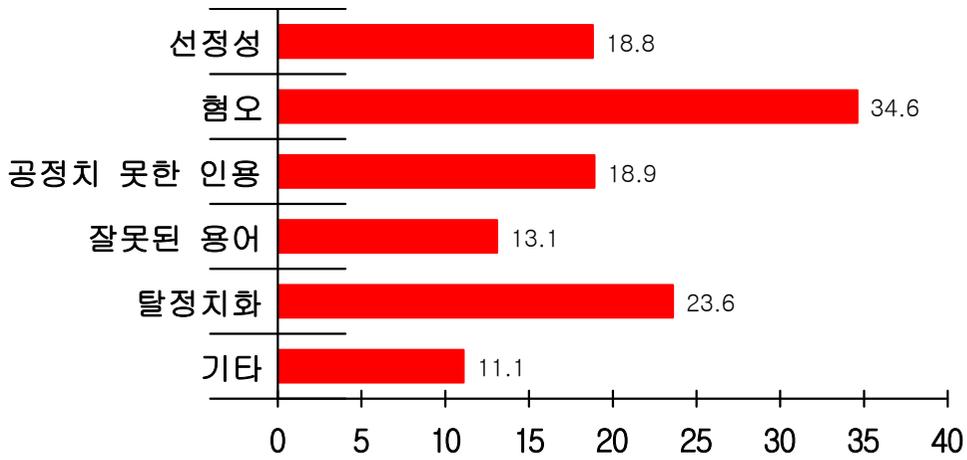
1.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적

1-1.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적 수

가이드라인 \ 신 문	중앙	한겨레	조선	서울	국민	동아	경향	문화	세계	내일	총 계
	레즈비언, 동성애 관련 보도 총 기사 수	60	45	43	54	17	161	92	65	68	19
1. 선정적인 보도	8	5	11	6	2	26	20	19	17	3	117
2. 혐오와 편견을 담은 보도	28	6	17	16	2	50	32	27	34	4	216
3. 공정치 못한 인용을 사용한 보도	17	7	9	1	3	22	13	23	22	1	118
4. 잘못된 용어를 사용한 보도	8	3	9	1	4	19	11	10	14	3	82
5. 탈정치화, 차별을 비가시화한 보도	38	3	23	2	2	26	20	15	12	6	147
6. 기타	9	5	2	5	3	18	11	5	8	3	69

*중복 체크 하였음

1-2.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적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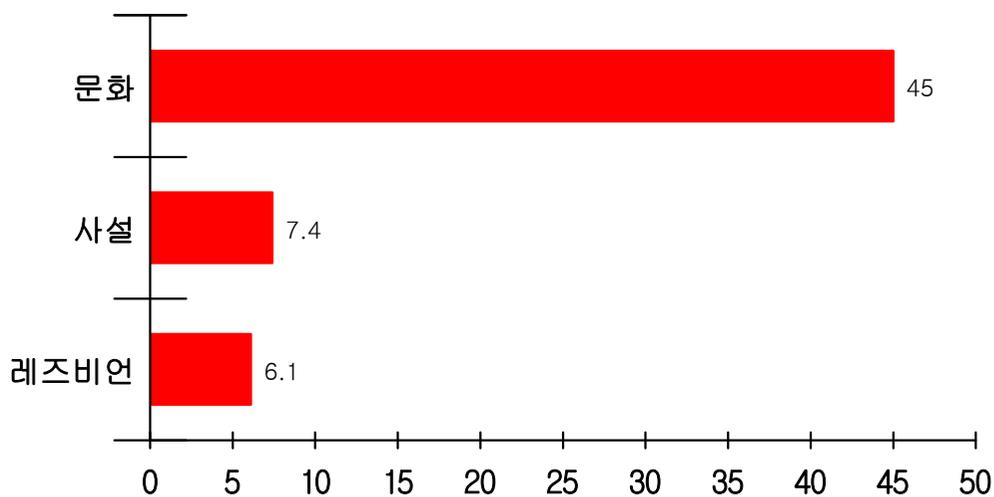
2. 기사 주제별

2-1. 주제별 기사 수

기사 주제 \ 신 문	신문										
	중앙	한겨레	조선	서울	국민	동아	경향	문화	세계	내일	총계
1. 문화 관련 보도	36	16	10	32	4	59	51	30	38	5	281
2. 논설 및 오피니언	10	2	7	1	3	7	7	4	3	2	46
3. 레즈비언 관련 보도	3	2	3	1	4	13	2	3	5	2	38

*중복 체크 하였음

2-2. 주제별 기사 퍼센트



레즈비언 보도 모니터링 통계 분석

1. 선정적인 보도

사람들은 ‘동성애자’ 혹은 ‘레즈비언’ 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릴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적인 행위’ 와 관련된 것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것은 사회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심어준 편견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다. 레즈비언은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비혼자라는 이유로, 별나고 이상하고 그래서 흥미로운 존재로서 쉽게 선정적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편견 때문에 동성애 관련 신문기사에는 기사내용과 상관없이 불필요한 성적 묘사가 담겨있는 경우가 많다.

1-1. 사진 또는 그림을 통해 기사의 선정성을 높이는 경우



“영화·광고·뮤지컬 휩쓰는 동성애 코드”, 중앙일보, 2006년 1월 21일자.

위 사진을 담은 이 기사에서는 “살을 맞댄 남자들 간의 끈적끈적함과 거친 숨소리가 TV 광고(SKY 휴대전화)를 타고 안방까지 침투했다. 금기의 벽은 벌써 허물어졌다.” 라는 표현을 쓰며, “동성 간 성행위=동성애” 라는 편

견을 그대로 드러낸다.

♥파격적인 동성애



“친구같은 사랑’이 광고효과 더 좋다”조선일보 2006년 10월 24일자.

이 기사의 내용은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팀의 설문 조사 결과 가장 효과적인 광고는 친구 같은 연인이 나오는 광고였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기대거나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하는 연인의 광고에 대해서는 편안함을 가장 높게 느끼고 거부감이 가장 낮았다. 광고 효과에서도 상표를 가장 잘 인식하는 등 효과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동성애 광고의 경우, “낯설어서 주의를 많이 끌므로 광고는 잘 기억하게 되지만 해석을 하려고만 할 뿐 정서적 공감을 하지 않아 광고 효과는 가장 나빴다”는 것이다. 이 기사 내용에 삽입된 사진 역시 선정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유도된 것으로 보인다.

- 1-2. 동성애를 동성을 향한 성적인 이끌림
또는 동성 간 성행위에만 집중시키는 경우

1997년 미 에모리대 프란스 드 윌 교수는 보노보 원숭이(피그미 침팬지)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소개했다.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 원숭이는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이성애(異性愛)나 동성애를 가리지 않는다. 이들에게 성관계는 생식을 넘어 평화를 유지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과학자들은 이미 타조, 갈매기, 도요새, 돌고래 등 470종 이상의 동물에서 동성애를 관찰했다. 지금도 뉴기니의 일부 부족은 아들에게 동성애를 유도한 뒤 성인식을 치른다.

-“왕의 남자”, 중앙일보, 2006년 1월 23일자

조선의 춘화는 19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김홍도나 신윤복의 낙관이 찍힌 것도 있다. 이들의 작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동성애를 즐기는 여성을 두고 남성이 후배위로 섹스하는 장면, ……유행가 가사와는 달리 ‘사랑은 아무나, 누구나 한다!’

- “시대별로 본 성(性)유물 청동기 이전부터 남자 나체상엔 과장된 성기…19세기 이후엔 노골적 春畵”, 조선일보, 2006년 2월 10일자.

위의 기사 외에도 “동성애 = 섹스” 를 의심하지 않는 기자의 소양이 드러난 기사는 매우 많았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동성애는 동성의 상대에게 감정적, 사회적, 성적 이끌림을 말하는 것으로 단지 성적인 이끌림만을 위한 관계가 아님에도 대부분의 기사에는 하나같이 “동성애 = 섹스” 관계로 보도하고 있다.

동물에게서 관찰되는 ‘동성 간 성행위’ 는 ‘동성애’ 와는 다르다. 동성애는 감정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동성에게 느끼는 것으로, 성적인 이끌림을 갖는 것만으로 동성애자가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체화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 간 성행위는 성정체성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동성 간 성행위는 ‘동성애자와 동성애자’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라는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군대 내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성폭행하는 사건을 보도하며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강제적으로 동성애를 했다.” 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가는 것이 있다.

1-3.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우

동성애적 이미지로 화제를 모은 러시아 여성 듀엣 타투(t.A.T.u.)가 처음 한국 땅을 밟는다.……2003년 빗속에서 키스하는 두 여학생이 등장한 뮤직비디오……레즈비언 논란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은.…… 무수히 듣는 질문이지만 우린 한 번도 우리 자신을 레즈비언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다. 서로를 아끼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관계는 가사와 노래에 충분히 반영돼 왔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당신들 레즈비언이죠?'라는 질문이 가장 싫다.

- “러시아 여성 듀오 타투 (t.A.T.u.) 서울 온다 레즈비언이냐? 서로를 아끼기 위한 강렬한 음악으로만 평가하세요” , 중앙일보, 2006년 9월 4일자.

2인조 여성그룹 '폭시'의 멤버 다함과 쥘마가 또다시 공개적인 키스신을 감행했다.……뮤직비디오 촬영 때 농도 짙은 입맞춤을 가져 동성애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즉흥적으로 이뤄졌다"……폭시 측은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 이번 뮤직비디오를 인터넷을 통해서만 서비스……섹시 경찰복, 누드집 등 섹슈얼리즘을 전면에 내세운 폭시는 지난달 13일 홍익대 앞 클럽에서 가진 독일월드컵 응원 당시 일부 방송사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키스(사진)를 해 적잖은 화제를 낳았다. 폭시에 앞서 2001년께 러시아 여성듀오 타투가 동성애 느낌과 키스신을 담은 뮤직비디오를 처음으로 발표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 “폭시 또 '키스 도발', 뮤비서 즉흥입맞춤 동성애 논란, 경향신문, 2006년 7월 25일자.

위의 두 기사를 보면 두 여성간의 키스신이 독자들의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로부터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최근 여성 그룹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강렬하기 심어주기 위해 이런 식의 이벤트(?)를 벌이기도 한다.

2. 혐오와 편견을 담은 보도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은 다른 말로 호모포비아(Homophobia)라고도 한다. 동성애 혐오증이란 ‘근거 없이 막연하게 동성애에 대한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며, 정확한 정보 없이 동성애자에게 욕을 하거나 비방하는 것 (한국레즈비언상담소, <FAQ> 참고)’ 이다. 그렇다면 종합 일간지에서 어떻게 동성애 혐오적인 보도가 되고 있을까?

2-1.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

1) 금지된 사랑으로 보는 경우

2001년 ‘동서문학’ 신인상으로 문단에 나와 지난 5년 동안 발표한 단편들을 묶어놓은 이 소설집은 ‘장애가 많은 사랑’을 천착한다. 방씨가 이른바 ‘동성애’나 ‘근친상간’을 아슬아슬하게 소설의 소재로 끌어오는 이유도 이런 맥락이다. 자극적인 소재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다양한 고난을 보다 깊이 있게 드러내려는 시도인 것이다.

- “방현희씨 첫 단편집 '바빌론 특급우편' 퍼내-동성애·근친상간...
"금기 넘어선 사랑의 사랑" 그렸다”, 세계일보, 2006년 06월 17일자.

이 기사의 문제점은 특히 제목(headline)에 있다. 신문 기사 제목은 기사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인 만큼 중요하게 정해져야한다. 그러나 이 기사 제목 자체만으로도 동성애가 ‘금지된 사랑’ 이라고 인식하게 만든다.

2) 사회적인 금기로 보는 경우

생태학적으로도 한정된 공간에서 쥐를 사육하여 밀도가 높아지면, 자살, 자위, 동성애, 자해, 타해 등의 모든 문제 행동들을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자신에게

동성애적 취향을 발견했다거나 혹은 그런 경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근처에 있다면, 일단 동성애를 도덕적인 타락으로 보는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나, 그들의 성격과 환경 전체에 대해 통합적인 접근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함께하는 교육 -자녀의 성 이렇게 말해보세요/
동성애 취향 ‘색안경’ 끼고 바라보지 마세요”, 한겨레, 2006년 4월 10일자.

3) 동성간 성행위나 동성애가

에이즈의 유일한 혹은 주된 감염 경로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

에이즈 감염과 성적체성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 감염인에 대해 언론은 호들갑을 떨며 마치 에이즈의 주범이 동성애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2002년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된 A 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동성연애 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자 7명과 10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동성애 사이트에서 ‘남자끼리’ ‘인천만남’ 등의 대화명으로 동성애자를 유혹해 모텔, 공원, 승용차 등에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 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성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를 관리 감독하는 관할 보건소는 2002년 A 씨가 동성애자와의 성행위로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후 A 씨의 동성애 행각을 눈치 채지 못했다.

- “에이즈 숨긴 채 3년간 동성애... 20대男, 7명과 성관계”,
동아일보, 2006년 3월 11일자.

4) 동성애자의 권리 보장을

사회적인 해악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

다음은 대법원에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허가한 사건에 대한 외부 기고이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바뀐 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성 변경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 “혼인과 가족 생활은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규정이다. 그럼에도 이미 혼인한 어느 한 성이 법적으로 변경된 경우 그 혼인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동성(同性) 간 혼인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이미 성립한 혼인 상태는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경우이거나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된다.

- “대법 "성변경 허가" 걱정된다”, 세계일보, 2006년 06월 28일자.

이 기사는 마치 성전환자의 호적정정과 함께 동성애자의 혼인 문제도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낸다. 성전환자의 인권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의 판단은 환영받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단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처럼 주장한다. 그리고 중요한 동성애자 인권의 문제인 가족구성권 문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2-2.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유포하는 보도

1) 동성애에 대한 불확실한 원인설을 제공하는 경우

아래 기사는 커밍아웃한 미국의 의원이 어린 시절 성폭력을 당해 게이가 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동성애자가 된 원인에 집착하는 것도 편견에 해당된다.

의회의 10대 소년 사환에게 성적인 내용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폴리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했다고 그의 변호인인 데이비드 로

스 변호사가 밝혔다.로스 변호사는 폴리 전 의원이 13~15세 시기에 한 성직자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한 바 있으며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도 밝혔다고 전했다.

- “미국 폴리 전의원 "나는 동성애자"고백”, 세계일보, 2006년 10월 5일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유로 이성애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동성애의 경우는 넘쳐난다. 이는 동성애를 ‘치료’ 해야 할 질병으로 간주하여 ‘원인’ 과 ‘치료법’ 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2) 동성애를 질병으로 간주하는 경우

군 입대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신체검사 때도 단순히 동성애 사유만으로는 현역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게 병무청의 입장이다. 병역 기피 방법으로 악용될 가능성 때문이다. 연예인 하리수씨처럼 성 전환수술을 받는 등 외견상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국방부령 590호를 적용해 입대 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령 590호는 동성애자를 '성 주체성 장애' '성적 선호장애'로 규정해 정신과 치료를 거쳐 군 입대 적합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 “작년 동성애자 8명 전역’ 커밍아웃만으론 힘들어 치료나 형사처벌 받아야”, 중앙일보, 2006년 2월 17일자.

3) 동성애를 일시적인 감정으로 치부하는 경우

아래의 기사는 동성애를 일시적 감정이나 현상으로 치부하는 문제와 함께 동성애의 원인(설)의 문제도 포함된 복합적으로 편견적 기사이다.

동성 간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청소년기는 이것이 과연 우정인지 아니면 동성애인지 모호할 때가 많다. 성에 대한 정보와 자극이 넘쳐 나는 시대인지라,

특별히 동성애적 취향은 없는데 우연히 자극을 받아 일종의 성적 놀이 같은 동성애에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피임약 등 호르몬제를 과다하게 복용한 엄마로부터 태어난 남자 아이의 경우 나중에 여성 같은 정신 신체 특징을 보일 때도 있다. 드물지만 염색체 이상이나 호르몬 이상 때문에 동성애 성향이 생기기도 한다. 동성애도 이렇게 원인이 다양한 까닭에, 의사나 부모들은 단순화되고 경직된 태도로 청소년의 동성애 성향을 대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와의 심리적 갈등이나 잠재적인 사회 부적응 등이 병존하는 사례들도 있지만, 동성애적 취향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도 없지 않다.

-“함께하는 교육 -자녀의 성 이렇게 말해보세요/
동성애 취향 ‘색안경’ 끼고 바라보지 마세요”, 한겨레, 2006년 4월 10일자.

4) 동성애를 사회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

최근 들어 동성결혼이 점차 확산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는 건전가정 정신에 배치되는 것으로 자녀교육 등 문제점이 늘어나면서 그 해결책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독일동성애자연합회(LSVD)의 엘케 얀센 회장은 독일 어린이 2100만명 가운데 10만명이 동성애자 가정 출신이라고 밝혔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동성애가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아직은 종교계와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는 동성 결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 “붕괴되는 가정/미 미혼여성 25%는 "동거중"”, 세계일보, 2006년 2월 1일자.

사실 혐오와 편견 문제는 완전히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레즈비언에 대한 혐오는 레즈비언에 대한 ‘무지’ 에서 시작하며 기존의 레즈비언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레즈비언에 대한 ‘편견’ 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레즈비언을 비롯하여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한 것이다.

3. 공정치 못한 인용을 사용한 보도

신문 보도에서 기자는 동성애에 대해 혐오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의 말이나 연구결과를 인용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기도 한다. 하나의 주제를 다룰 때, 동성애에 부정적인 의견을 길고 구체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퍼트리기도 한다.

사설이나 오피니언은 신문 기자가 아닌 외부 기고자의 의견을 실는 란이다. 그렇기에 그 기사의 밑에는 종종 “본 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다. 그러나 유독 사설이나 오피니언을 통해 동성애 혐오적인 주장들이 빈번히 확산된다면, 기고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신문의 동성애 혐오적 입장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누구의 말을 어떻게 인용하는지 신문의 입장을 밝히는 다른 방식이므로 인용이나 기고 글이라고 해서 동성애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1.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혐오를 유포하는 경우

그는 또 “보수는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회의 정체성 파괴를 경계한다”며 “동성애자를 차별해서는 아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마치 정상적 인간관계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는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사회에서 '보수'는 무엇을 의미하나?”, 동아일보, 2006년 9월 14일자.

한 법대 교수가 한 주장을 따옴표 안에 그대로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동성애는 정상적 인간관계의 한 형태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 기사에서 전문가의 말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전문가의 말은 그가 전문가라는 이유 때문에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이나 공정함과 무관하게 권위를 띤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을 더욱 쉽게 신뢰한다. 그러므로 이를 인용할 때는 더욱 책임감이 요구된다.

3-2. 입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정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

형이 많은 사람이 게이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원인은 남자아이를 많이 출산한 여성의 자궁 안의 환경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온타리오 브로크 대학의 안토니오 보거트는 ‘형들과 같이 자라지 않은 남성의 경우도 게이가 된 사례가 많다’는 사실에서부터 다시 연구를 시작해 ‘가족 환경이 아닌 자궁 안의 환경이 동성애자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 “동성애, 태아 때 결정돼”, 내일신문, 2006년 6월 30일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정신질환으로 여겨졌다. 의학적인 치료의 대상이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동성애 인권운동이 활발해지고, 동성애에 대한 혐오에 대해 각성하면서, 지금은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의학과 과학 분야의 연구들에 영향을 미친 예이다. 지금도 동성애의 원인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동성애가 정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이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편견을 기반에 깔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들은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고 많은 검증이 필요한 것들인데도,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자주 기사화되곤 한다. 이런 기사들은 동성애에 대한 심각한 편견들을 유포한다.

3-3. 종교계의 주장을 통해 동성애 혐오를 강화하는 경우

언론은 내가 그동안 그들을 상대로 사역해왔던 것은 전혀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매도했다. 또 교회와 신앙인들도 나를 비판했는데 정도가 더 심했다.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의 형상 파괴입니다. 이들을 인정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 “다비타공동체 대표 전우섭 목사 (12) 인내·사랑·용서로 술한 난관 극복”, 국민일보, 2006년 9월 22일자.

일부 종교인들은 동성애를 죄악이나, 동정의 대상, 일탈로 규정한다. 이 모든 시선은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악이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신문에서 빈번하게 종교계의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보수적이고 소수자에 혐오적인 입장을 반복해서 전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

3-4. 예술 작품, 창작물의 내용을 빌어 혐오를 드러내는 경우

방씨는 “띠엄띠엄 발표했던 단편들을 모아놓고 보니 그동안 말하려고 했던 것들이 퍼즐을 맞추어놓은 것처럼 선명하게 보인다”며 “밀착된 관계 속에서 서로 미끄러지고 고통 받는 어려움을 말하려다 보니 그런 관계 중에서도 가장 장애가 많은 사랑을 자주 다루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방현희씨 첫 단편집 '바빌론 특급우편' 퍼내-동성애·근친상간...
"금기 넘어선 사랑의 사랑" 그렸다”, 세계일보, 2006년 6월 17일자.

동성애나 동성애자에 대한 문화적 창작물이 많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기사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창작물들이 동성애에 대한 무지나 혐오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에 대한 기사 역시 그런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 경우가 많다. 위 기사에서도 제목에서는 동성애를 근친상간과 동일 선상에 두고, 내용에서는 동성애를 금지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화적 창작물이 마치 정치적 중립성

을 가진 것처럼 여겨지는 대다가 인용이라는 형식 또한 그러해서, 이런 경우 기사가 가지고 있는 입장 및 효과가 묻히기 쉽다.

3-5. 일반 대중의 혐오를

그대로 실거나 부각시키는 경우

주부 김모(55)씨는 “안됐다는 생각은 들어도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동성애에 관련된 정보는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만큼 차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비정상’으로 태어난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장려해야 할 문제도 아니다.”라는 말에서 그 세대의 편견이 묻어난다.

회사원 박모(31)씨는 “그들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내 주변에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 ““변태” “내 주변엔 없길”... 편견 여전“, 서울신문, 2006년 2월 17일자.

기사의 마지막에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짧게 들어가 있지만, 그 전에 동성애를 혐오하는 입장을 세배가 넘는 분량으로 실려 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편견들을 소개하는 모양이 되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두 명의 말은 익명성 속에서 오히려 다수의 입장처럼 여겨진다. 동성애에 대해 혐오하는 말을 선정적으로 실음으로서 기사들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것이 혐오의 확산이나, 공유의 쾌감은 아닌지 말이다.

3-6. 동성애에 대한 혐오적인 입장만을

부각시키는 경우

병영 내 동성애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 작업과 격리 또는 전역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성추행을 못 견뎌 병사가 자살한 적도 있고, 군에서 10명 중 1명꼴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인권위 조사결과도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도 동성애자로 밝혀지면 전역시키는 등 엄중 조치를 한다. 병영이 동성애의 사각지대로 남아서는 안 되며, 변태적 성적 행위에 대한 국방부의 확고한 대책이 없다면 장병들은 물론이고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들도 안심할 수 없다.

- “병영 내 동성애 허용할 셈인가”, 세계일보, 2006년 4월 6일자.

이 기사는 동성애자는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편견, 동성애가 하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변태적 성적 행위라는 편견을 사실인 것처럼 담고 있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명백히 형평성을 잃은 혐오적 입장을 띤 기사이다. 사실이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란이지만 기본적인 공정성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기고자를 선정하고 기사를 선별하는 작업도 정치적이란 사실을 간과하거나 은폐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매우 적고, 그걸 접할 수 있는 통로도 적다 보니, 옳지 않은 말들이 마치 사실인 양 버젓이 신문 상에 오른다. 동성애에 대해서 편견 없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매우 적은데도 모두가 다 전문가가 되고 모두의 말이 신빙성을 얻는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인용한 이야기라고 해서 동성애를 혐오하는 의견을 퍼뜨린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말일지라도 기자나 편집국이 선택해서 신문에 올릴 때에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하는 게 당연하다. 기자가 언론보도에 윤리의식을 지니고 있다면, 잘 모르는 것이라면 좀 더 알아보고 자기가 실은 기사가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잘못된 용어를 사용한 보도

한국에서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나고 영화나 드라마상의 동성애자 캐릭터가 등장하며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해 인식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기 쉽다. 하지만 대중언론매체에 등장하는 동성애자에 대한 호칭은 여전히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동성애자를 “동성연애자” 라고 표기 한다든지 트랜스젠더와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다. 심지어는 동성애를 동성 간 성행위와 동일시하는 맥락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언론과 기자들은 누구보다도 소수자에 대한 인권에 민감해야 할 집단이다. 그럼에도 잘못된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동성애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견고하게 만든다. 언론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를 써서 보도하여야 할 것이다.

4-1. 동성연애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

동성연애자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를 성적인 의미에만 국한해서 사용해온 비하적인 용어이다. 과거에 비해 노골적으로 “호모” 나 “변태” 라는 비하적인 말은 드물지만 “동성연애자” 라는 적절치 못한 말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성역’으로 간주돼온 동성연애자 등 소수자 인권보호를 제기한 것은 우리나라의 인권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있다.

- “비현실적 권고 혼란 초해 북한 인권엔 침묵”, 국민일보, 2006년 1월 16일자.

아직도 동성연애자의 군 입대나 동성애 영화 상영을 놓고 주(州)마다 입씨름을 벌이는 미국과는 대조적이다.

- “왕의 남자”, 중앙일보, 2006년 1월 23일자.

예를 들면 자신이 첨단 기술에 밝지만 동성연애자이면 샌프란시스코로 가고, 반면 자신이 첨단 기술에 밝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 델러스로 이사한다는 것이다.

- “미 사회도 양극화 몸살”, 세계일보, 2006년 2월 2일자.

4-2.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혼동한 경우

트랜스젠더란 자신의 타고난 신체적인 성과 사회적인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다.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나 하는 것이 이끌림을 느끼는 ‘상대의 성별’과 관련된 문제라면 트랜스젠더는 ‘본인의 성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것이다. 트랜스젠더와 중에는 동성애자도, 양성애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인 여성이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이성애자이다. 하지만 여성으로서 같은 성의 여성과 교제하고 있다면 동성애자인 것이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혼동하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남자 같은 여자’나 ‘여성 같은 남자’는 다 동성애자일거라는 편견과 무지 때문이다.

동성애에 관한 한 우리사회의 경우 유독 절대적 소수자 취급을 해왔다. 세상은 개방됐지만 여자가 되려는 남자에 관한 한 우리사회는 그리 너그럽지 못하다.

- “우리사회 편견과 위선 뒤집기 천하장사 마돈나”, 문화일보, 2006년 9월 6일자.

4-3. 동성 간 성행위가

곧 동성애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성정체성의 하나이다. ‘이성애를 하다’는 말이 어색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이유는, 이성애는 삶의 한 방식으로 ‘하다’는 하나의 행위 동사로 수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성애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럼에도 종합일간지에서는 “동성애를 하다” 혹은 “동성애 관계” 라는 말이 빈번히 쓰이고 있다. 이는 동성애를 동성 간 성행위와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수줍고 소심한 상드린은 남자 유혹에서 선수인 나탈리를 통해 거듭난다. 이 둘은 한 조가 되어 지하철에서의 은밀한 자위와 동성애까지 탐닉하며 여성 몸의 섹슈얼리티로 세상을 정복할 야심 찬 전략을 세워간다.

- “남자들이 모르는 은밀한 것들”, 문화일보, 2006년 2월 16일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25일 동성애 관계를 반대하는 동거녀의 오빠에 대해 허위 신고하고

- “동성애 30대 여성 “내 애인 돌려줘” 행패”, 동아일보, 2006년 5월 26일자.

모든 신문에서 이렇게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동성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호모나 동성연애자 대신 동성애자를 사용하는 기사가 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여전히 편견에 기댄 용어들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요즘에는 동성애 관련한 믿을만한 자료집이나 FAQ도 나와 있다. 기사를 쓰기 전에 찾아 읽어본다면 바뀔 수 있는 일이다.

5. 차별을 비가시화한 보도

5-1. 동성애를 비밀인 것, 사적인 것으로 보도한 경우

하지만 다이아나로 변신한 제우스가 칼리스토를 속이고 성관계를 가진 후 칼리스토의 의심을 받는 상황을 그린 것임을 안다면, 그림은 더 이상 단순한 누드화가 아니다. 더구나 그림은 다이아나와 칼리스토의 동성애까지 폭로하고 있다. 그야말로 에로티시즘의 극치라 하겠다.

- “[명화속여성] 프랑수아 부세의 “목욕하는 다이아나””,
세계일보, 2006년 7월 14일자.

이 기사에서는 ‘동성애까지 폭로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언론은 이처럼 동성애를 폭로될만한, 혹은 폭로되어야 할 비밀이나 은밀한 것으로 본다. 이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선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동성애자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자아 정체성의 일부분이다. 마치 그것을 폭로시키는 것이 정의롭고 새로운 것인 양 보도하는 것은, 동성애가 개인의 은밀한 비밀이자 사회에서는 죄나 부도덕이라는 편견을 강화한다. 그리고 언론이 편견을 부추김으로 인해, 동성애자는 더더욱 벽장 안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다.

또한 동성애자 정체성은 타인으로부터 폭로되어서는 안 된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극심한 상황에서 무방비 상태로 정체성이 알려질 경우, 동성애자는 폭력과 차별에 즉각 노출되기 때문이다. 동성애자에게는 고민과 준비를 거쳐 자신의 정체성을 직접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체성을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사실 이성애 중심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은밀한 비밀이나 죄로 간주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은 이러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올바른 정보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5-2. 동성애를 단지 개인적 취향으로 보도한 경우

언론은 동성애나 동성애 정체성이라는 용어 대신, ‘동성애 성향’ 또는 ‘성적 취향’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언급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는 현대 사회를 상징하는 열쇠 말(키워드)의 하나로 성(섹스)을 꼽는다. 정부효는 섹스가 미(美)로 해석되는 감성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이성애와 동성애만 세상에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라는 이분법은 편리한 분류지만 이미 다양하게 분화된 이 사회의 성적 취향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 “<안병찬의 트렌드 추적 한국의 미래지표 16인>

④피메일리즘(femalism) 전도사 정부효”, 내일신문, 2006년 5월 18일자.

위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성향이나 성적 취향이라는 표현은 언제나 성, Sex와 연결되면서, 동성애자를 단지 성적인 이끌림만을 갖는 사람처럼 나타낸다. 그러나 동성애란 같은 성별의 사람에게 감정적, 사회적, 성적 이끌림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성향 또는 성적 취향이라는 표현은, 동성애 정체성을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로만 읽도록 유도한다. 동성애 정체성을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괴롭힘을 삭제해 버릴 위험을 갖는다.

성향이나 성적 취향이라는 표현은 동성애를 지극히 개인적이고 성적인 취향으로 취급하게 하는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편견으로부터 비교적 중립적인 용어라 할 수 있는, 동성애 또는 동성애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

5-3. 동성애를 단지 문화적인 코드로 보도한 경우

금단의 사랑이자 이뤄질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이 동성애를 보는 여성들의 관점이다. 최근 영화 '왕의 남자'를 계기로 동성애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관점에서 남자들의 사랑을 섬세하게 다룬 작품이 잇달아 출간됐다.

- “순정만화 '그들만의 性' 엿보다, '왕의 남자' 후폭풍...남성동성애 소재로”,
경향신문, 2006년 5월 22일자.

동성애라는 파격적인 감성코드를 ‘흥이 있고 슬픔이 있으며 아름다운’ 보편적 감성코드로 승화시켰다는 것이다.

- “내일 1000만 관객 돌파 왕의 남자 경제학자의 분석”,
문화일보, 2006년 2월 10일자.

2006년 한 해 동안 “왕의 남자”가 크게 흥행하고 “브로크백 마운틴”과 “메종 드 히미코” 등도 관객의 호응을 얻으면서, 동성애는 문화적 코드 내지는 문화적 트렌드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실제 동성애자들의 삶이나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알려지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의 측면에서 동성애가 좋은 소재가 된 것이 현실적으로 동성애자들의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언론의 책임이 크다. 언론은 동성애를 낭만화하기 위해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금기를 부각시켰지만,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또한 동성애를 문화적인 코드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컸다.

동성애를 단순히 문화적 트렌드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동성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기자의 편견이 그대로 드러났다. 위에 인용한 첫 기사에서는 ‘동성애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동성애를 소재로 한 문화가 호응을 받았다고 해야 맞다. 파격적인 동성애를 보편적인 코드로 승화시켰다는 내용의 두 번째 기사를 읽으면, 동성애를 보편적이지 않은 일탈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성애가 문화적인 소재로 쓰이는 것은, 실제 동성애자들의 삶이 향상되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다. 오히려 동성애가 한 때의 문화적 유행이 될 때, 동성애자들이 받는 차별에 고민할 기회는 차단된다고 할 수 있다. 유행은 끝나고 잊히기 마련이다.

언론은 동성애를 문화적인 코드로만 몰아가는 보도를 중단하고, 문화적인 소재로서의 동성애를 넘어 실제 동성애자들의 삶을 조명해야 한다.

5-4. 동성애를 낭만화한 경우

둘이 만나 사랑에 빠지고, 뒤돌아섰다 부둥켜안고,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20여 년간 이어진 사랑은 곱고도 순수했다. (중략) 정상이나 비정상이나를 놓고 주저하지도 않는다. 사랑을 느껴 사랑에 빠졌을 뿐이다. 영화 속 카우보이의 사랑도 그러했다.

- “흔한 사랑인 듯 무심하게 그려낸 동성애”, 중앙일보, 2006년 6월 16일자.

동성애를 비정상적이고 난잡한 성적 행위로 그리는 반면, 동성애를 사회적 금기를 초월한, 낭만적이고 순수하며 열정적인 사랑으로 읽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이러한 낭만화는 무조건적인 혐오와 정반대에 위치해 있을 뿐, 결국 편견의 일종이다. 이성애가 채우지 못하는 낭만성, 순수성의 발현체로 동성애를 바라볼 때, 결국 동성애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유별나고 기이한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동성애를 특별한 것으로 바라보는 이상, 동성애자가 언제나 우리 사회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기란 어렵다.

또한 동성애를 과도하게 아름답고 고결한 것으로 포장하는 것은 동성애를 단순히 이성애자의 대리만족 창구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이성애 중심주의와 편견을 성찰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사람들은 ‘금기를 이겨낸 사랑’에 감동받지만 그 금기를 만든 책임이 우리 사회에, 바로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언론은 동성애를 지나치게 낭만화 함으로써,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향한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5-5. 동성애자를 향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한 경우

동성애자는 유별난 집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 어디에나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존재일 뿐이지만, 동성애나 이성애나 똑같은 사랑이라고 단순화시켜 말하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동성애는 이끌림을 느끼는 상대의 성별이 동성이라는 점에서 이성애와 차이가 날 뿐, 지극히 자연스럽고 존중받아 마땅한 감정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애와 이성애가 동등하게 인정받지 않고 있다. 동성애를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우며 변태적인 것으로 보는 편견이 팽배하다.

특히 작품집에서 작가가 몰두하는 ‘비정상적 정상인’은 동성애자다. 남성 디자이너와 남성 모델 간의 사랑과 질투를 다룬 ‘연애의 재발견’ 등 단편 4편이 동성애를 다뤘다. 작가는 사회학적 해석이나 무조건적 설득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평범한 사랑처럼 담담하게 묘사한다. 정상인과 비정상인이 다르지 않은 세상에서 동성애든 이성애든 사랑은 결국 다 같은 모습이 아니냐고, 작가는 소설을 통해 반문한다. 그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기이한 세상의 모습이다.

- “정상적인 사랑이란...방현희 소설집 ‘바빌론 특급우편’”, 동아일보, 2006년 6월 20일자.

위 기사에서는, 동성애자를 ‘비정상적 정상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평범한 사랑처럼 담담하게 묘사’라는 표현도 눈에 띈다.

동성애를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사랑의 감정으로 보는 인식 및 태도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다. 하지만 현실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현실의 차별과 폭력을 드러내며, 나아가 그것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즉 언론은 동성애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차별과 폭력을 무조건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시화시키고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5-6. 동성애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나 진보의 척도로 도구화한 경우

페미니스트 보수주의자, 외국인 노동자와 동성애자 같은 사회적 소수에 관심을 갖는 보수주의자, 개발 못지않게 생태 파괴를 걱정하는 보수주의자, 국방의 의무를 기꺼이 짊어지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이해하려는 보수주의자는 나올 수 없을까. 다른 생각은 무조건 배척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딱딱한’ 보수로는 승산이 없다.

- “한국의 보수가 인기없는 이유”, 조선일보, 2006년 2월 21일자.

실제로 동성애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한 척도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이성애 중심주의가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아직까지 거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처럼 이념 논쟁이 심한 사회에서 진보의 척도로써 동성애를 바라볼 때, 동성애는 쉽게 도구화된다. 동성애자들의 삶의 문제들은 간과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동성애자들의 권리 역시 당연히 보장받아야 했던 것으로, 다만 이제까지 빼앗기고 억눌려 왔던 것뿐이다. 만약 우리 사회가 동성애자들에게 보다 평등한 환경으로 변화해 간다면, 그것은 진보 혹은 보수 진영의 ‘선심 쓰기’ 일 수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억압해 왔던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언론에서는 동성애를 진보나 보수를 가르는 잣대로 도구화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마치 대단히 급진적인 것인 양 다루거나 시혜적인 관점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2006 레즈비언 보도 경향

1. 레즈비언 관련 이슈 비가시화

2006년 한 해 동안 종합일간지에서 보도된 동성애 관련 기사 중에서 레즈비언 보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6.1%로 나타났다. 레즈비언 보도 수치가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는 언론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가 레즈비언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레즈비언 관련 이슈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하는 언론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보통 동성애 관련 보도는 200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되고는 있지만 그 안에 레즈비언 관련 보도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상담소에는 다양한 레즈비언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예를 들어 아우팅 매개 범죄, 동성애에 대한 혐오 범죄, 10대 청소년의 학교 폭력 및 차별 문제와 같은 인권 부분의 문제 외에도 수많은 레즈비언의 경험과 사연들이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 일간지에서 레즈비언 보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되고 있다. 그나마 보도되었다고 해도 실제 레즈비언의 삶을 왜곡되게 보도하기 일쑤이다. 사실 보도의 양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레즈비언의 보도가 적게 되고 있느니 보도의 양을 늘리는 것만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언론에서 레즈비언의 존재를 무조건 많이 가시화시킬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기사라도 레즈비언의 삶을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레즈비언의 삶을 보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레즈비언의 삶이 동일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각각의 레즈비언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레즈비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도하여야 한다.

2. 문화 부분의 보도 편중

2006년 한 해 동안 레즈비언 및 동성애 관련 기사는 늘었지만 대부분이 문화

영역에 편중되어 있었다. 소설, 영화, 연극 등의 소개와 비평 기사들이 주(主)를 이뤘다. 이는 레즈비언에 대한 이슈를 문화의 한 코드로 인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소설, 영화를 비롯한 문화 영역 속의 레즈비언은 예술인과 기자들에 의해 포장된 레즈비언의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포장된 레즈비언은 현실의 레즈비언을 완벽하게 대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둘을 똑같은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효과로 인해 실제 레즈비언의 삶까지도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다.

레즈비언 보도가 다른 면보다도 특히 문화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레즈비언 이슈가 정치·사회면에 실리기에 어울리지 않거나 사회 문제로 인식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물론 레즈비언의 인권 문제가 문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문화면에 실리는 것이 맞겠지만, 자고로 ‘인권’ 이슈나 문제는 정치·사회면에서 다루어지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기존의 레즈비언 보도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도 관점’의 전환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흥미 거리’로서 레즈비언에 대해 인식하면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측면에서 레즈비언 문제를 이해하고 보도하고자 노력한다면 문화 영역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레즈비언 이슈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3. 논설/외부 기고/‘전문가’ 의견 인용 문제

그동안 보도되지 않았던 숨겨진 레즈비언 이슈를 보도할 때도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다양한 논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논쟁되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여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보도는 오히려 레즈비언에 대한 동성애 혐오적 인식을 조장하게 만들 수 있다. 즉, 레즈비언을 비롯한 동성애 관련 이슈에 대해 동성애 혐오적 인식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은 레즈비언 보도에 오히려 공정성을 잃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위치에 있는 종교인, 교육자, 심리학자, 의사, 상담가 등 직책과 이름만 믿고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논설과 외부기고를 실을 때도 왜곡된 레즈비언 보도가 생산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레즈비언 관련 보도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보도 규칙인 공정성과 정확성 그리고 균형성을 적용하여 레즈비언의 현실을 보다 ‘사실 그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사를 만드는 기자의 인식이 중요할 것이다. 기자가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사의 관점과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다. 기자가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기사 자체에도 기자의 인식은 그대로 반영된다. 이러한 기자의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결국 동성애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곧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왜곡된 인식이 더욱 공고히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의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은 필히 요구될 수밖에 없다.

좋은 기사 / 나쁜 기사

1. 좋은 기사

1-1. “동성애자 살인사건 떠들썩”, 내일신문, 2006년 3월 17일자.

동성애 여성 살인사건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회가 떠들썩하다. 남아공은 법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해 관용적이지만 현실은 이들이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남아공 주간 <선데이타임스>가 보도했다.

◆가해자 보석으로 풀려나

카이엘리차에 살고 있는 졸리스와 은콘야나(19)라는 여학생이 지난달 4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20세 사이 젊은 남성 20여명이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졸리스와에게 골프채를 휘두르고 벽돌을 집어던지며 집단구타를 가해 사망하고 말았다. 가해자 6명은 체포돼 법정에 섰지만 지난 달 28일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선데이타임스>가 졸리스와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늦장대응을 보도하면서부터였다.

신문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발생 2주가 지난 뒤에야 수사에 들어갔으며 그것도 기자가 경찰에 전화를 해주고 난 뒤 유일한 증인에게 연락을 취했다.

사실 남아공사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은 비밀비재하다. 하지만 쉬쉬하고 감춰지기 일쑤다. 이번에도 지역사회는 이 여학생의 죽음에 대해 침묵만을 지켰다.

<선데이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이렇게 침묵 속에서 넘어갈 뻔 했던 것은 동성애자가 처한 이런 현실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초 동성애자 가두시위

동성애 인권보호 단체인 '삼각프로젝트'의 글렌 드 스와르트는 "사건의 책임이 동성애자 단체 스스로에게도 있다고 자책하고 있다"며 "우리 자신이 이런 폭력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대응이라고는 입을 다무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도 글렌이 다른 일로 기자와 통화를 하다가 줄리와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알려지게 된 것이었다.

글렌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면 줄리스와의 죽음은 여느 동성애자 폭력사건과 마찬가지로 묻히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각프로젝트의 돈 베티리지 회장은 "욕설과 폭력·강간·살해위협은 남아공 동성애자들이 겪는 일상이지만 이번 사건을 접한 동성애자들은 충격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줄리스와와 함께 축구클럽에서 활동한 친구 트소 그카카피는 "남성들은 우리를 언제든 강간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축구클럽도 트소 그카카피와 줄리스와가 2년 전 자신들과 같은 어린 레즈비언들이 나이트클럽과 같은 곳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막기 위해 만들었다.

줄리스와의 어머니 모니카 만딘디는 "내 딸의 죽음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줄리스와는 동성애자이지만 신이 내게 주신 유일한 아이였다"며 절규했다.

줄리스와의 장례식에는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남아공 최초의 동성애자 가두시위가 얼마 전 진행됐다.

1-2. "서울대 학생들 동성애 잡기 '퀴어플라이' 창간", 중앙일보, 2006년 8월 26일자.

동성애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잡지가 창간된다. 서울대학교 동성애 동아리인 '퀴이즈(QIS:Queer In SNU)는 다음달 초 성적 소수자들의 학내 매체인 '퀴어플라이(QueerFly)'를 창간한다고 25일 밝혔다. 동아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모아서 만드는 이 잡지는 동성애 대학생으로서의 일상과 성 정체성, 정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퀴이즈 측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나오지만 정작 성적 소수자들에게 의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창간 이유를 밝혔다.

또 "2006년 오늘을 살고 있는 대학 동성애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을 것"이라며 "잡지 창간은 성적 소수자와 사회의 소통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이 잡지는 서울대 관악캠퍼스를 중심으로 관련 시민단체와 대학 동아리 등에 1000여 권이 배포

된다. 창간호는 '성적 소수자들이 일상사회를 보는 시선'을 주제로 하며 80~100쪽 분량이 될 예정이다.

큐이즈는 1995년 '마음 001'이란 이름으로 처음 결성됐다. 99년 서울대 중앙동아리로 등록했으며 학내의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큐이즈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잡지 창간 사실을 공개했으나, 회원 수·연락처 등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대 외에 연세대 '컴투게더', 고려대 '사람과 사람', 성균관대 '성퀴인' 등 주요 대학마다 동성애 동아리들이 운영 중이다. 레즈비언들의 동아리인 이화여대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는 2003년부터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등과 연대해 매년 '레즈비언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올해도 다음달 8~10일 홍익대학교 주변에서 사흘간 레즈비언 관련 영화상영 등 레즈비언만을 위한 독자적인 문화행사를 열 예정이다.

◆ '퀴어(Queer)'란=사전적으로는 '기묘한, 기분 나쁜'이란 뜻. 처음에는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뜻으로 사용되다 80년대 이후 미국에서 동성애 운동가들이 적극 수용하기 시작했다. 동성애자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동성애를 주제로 다룬 영화를 '퀴어시네마'라고 부른다.

2. 나쁜 기사

2-1. “[야 한국사회] 커밍아웃 선동기”, 한겨레, 2006년 2월 9일자.

“네 아들이 남자를 좋아하면 어떻게 할래?” 술자리에서 동성애에 관해 토론을 하던 중 친구에게 물었더니, 무시무시한 답이 날아온다.

“그럼 죽여 버릴 거야.” 설마 진짜로 죽이기야 하겠냐만, 동성애에 대한 친구의 증오는 섬뜩한 수준이었다. 다른 친구에게 왜 그렇게 게이가 무섭냐고 물었다.

“내가 당할 수도 있잖아.” 밤거리를 걷던 여자가 낯선 남자를 보면 불안해하는 이유가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 것처럼, 남자들이 게이에게 적대감을 갖는 것은 자신이 성적 대상이 된다는 망상에서 비롯된다. 같은 동성애라도 레즈비언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별반 적의를 드러내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하지만 게이도 나름의 기준과 취향이 있어 아무 남자에게나 덤비는 건 아니며, 남자들이 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인 성폭력을 행사하는 빈도가 높은 것과 달리, 대부분의 게이는 합의에 기초한 성행위를 한다. 그러니 남자들이 게이에 대해 갖는 두려움은 전적으로 그들의 무지 탓이지만, 동성애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

950만을 넘어서는 흥행을 한 <왕의 남자>의 선전은 그런 점에서 놀랍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수단이 광대들의 놀이판이고, 감독도 계급 이야기라고 거듭 강변하지만, 그 영화는 기본적으로 장생(감우성 분)과 공길(이준기 분), 공길과 연산(정진영 분) 사이에서 벌어지는 동성애에 바탕을 두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왕의 남자>의 성공을 우리 사회가 동성애에 대해 관대해진 결과로 봐도 괜찮은 것일까? 인권단체의 노력으로 인해 그전보다 동성애를 보는 시각이 부드러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그렇게 보기는 이른 것 같다. 난 이 영화를 두 번 봤는데, 연산이 공길에게 입을 맞추는 순간 두 번 모두 관객들의 입에서 비명 소리가 튀어나왔다. 남성과 여성의 키스는 짜릿함과 흥분을 선사하지만, 남성 간의 입맞춤은 아직도 우리에게 혐오의 대상이다.

남자끼리만 모아놓은 학교를 다닌 탓에 남자들끼리 그러는 걸 여러 번 보긴 했어도, 오랜 세월 게이는 내게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었다. 서른이 넘어 소위 진보적인 책들을 읽으면서 그간의 삶을 반성했고, 동성애에 대해 열린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었지만, 머리와 가슴이 언제나 같이 가는 것은 아니어서, 언젠가 극장에서 앞에 앉은 남자 둘이 머리를 기대고 때로는 더듬기까지 하는 걸 봤을 때 상영시간 내내 속이 불편했다. 뒤틀린 내 속은 상영 직후 불이 켜지면서 내가 남자로 오인했던 사람이 사실은 여자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풀렸으니, 이게 꼭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럼 방법은 있을까?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북한 사람들이 머리에 뿔이 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동성애자들과 자주 접촉한다면 그들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지 않을까? 대상이 보이지 않을 때 붙은 상상력이 싹트는 법이다. 범죄자도 아닌데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 폭력일 수도 있지만, 좀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커밍아웃을 한다면 사람들은 동성애자를 더는 괴물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이왕 하는 것,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한다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다. 참고로 말하면 내 젊은 시절의 우상 장국영도 게이였다.

**2-2. “[사설] 병영 내 동성애 허용할 셈인가”,
세계일보, 2006년 4월 6일자.**

‘병영 내 동성애 허용’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이를 엄격 규제하겠다고 뒤늦게나마 밝힌 것은 다행이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엇그제 국방위 발언을 통해 “병영 내 동성애 행위 처벌을 규정한 군형법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폐지 또는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군내 동성애를 사실상 허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윤 국방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국방부는 어제 “병영 내 모든 성적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국방부가 동성애자 인권 보호를 강조한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동성애 식별활동 금지, 성적 사생활 관련 질문 금지, 동성애 입증자료 제출 금지 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힌 대목이다. 비록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병사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군이 상명하복의 특수조직임을 감안할 때 동성애자를 적발하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상급자가 동성애자일 경우 하급자들은 성추행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마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병들이 침대가 아닌 침상 위에서 ‘칼잠’을 자는 형편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병영 내 동성애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작업과 격리 또는 전역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성추행을 못 견뎌 병사가 자살한 적도 있고, 군에서 10명 중 1명꼴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인권위 조사결과도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도 동성애자로 밝혀지면 전역시키는 등 엄중 조치를 한다. 병영이 동성애의 사각지대로 남아서는 안 되며, 변태적 성적행위에 대한 국방부의 확고한 대책이 없다면 장병들은 물론이고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들도 안심할 수 없다.

**2-3. “동성애, 태아 때 결정돼”,
내일신문, 2006년 6월 30일자.**

‘게이(동성연애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난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영국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 1000명의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가장 관련 깊은 요소는 ‘남자형제의 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형이 많은 사람이 게이가 될 확률이 많다’란 통계는 몇 년 전으로부터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환경-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게이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이다.

형이 많은 사람이 게이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원인은 남자아이를 많이 출산한 여성의 자궁 안의 환경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온타리오 브로크 대학의 안토니오 보거트는 ‘형들과 같이 자라지 않은 남성의 경우도 게이가 된 사례가 많다’는 사실에서부터 다시 연구를 시작해 ‘가족 환경이 아닌 자궁안의 환경이 동성애자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즉 남자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의 몸 안에는 남성 염색체(Y)에 대항하는 항체가 형성되는데 남자 아이를 많이 임신할 수록 이 항체가 몸 안에 계속 축적된다는 것이다.

결국 Y염색체에 대항하는 항체가 많은 환경 안에서 9개월을 지낸 남성태아가 여성적 성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보거트의 동료인 미시건 주립대학의 마크 브레드러브는 미국과학학회에 제출한 논문에서 “프로이드는 아버지의 냉담한 태도가 아들을 동성애자로 만든다고 말했지만, 연구결과 어머니의 면역체계가 아들을 동성애자로 태어나게 한다”고 결론지었다.

**2-4. “"브로크백 마운틴" "타임 투 리브"”,
세계일보, 2006년 2월 10일자.**

개봉을 앞둔 화제의 영화 두 편은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제62회 베니스영화제에서 그랑프리상을 수상하고 2006 골든글로브 4개 부문을 석권한 미국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과 프랑스 영화 악동으로 불리는 프랑수아 오종 감독의 ‘타임 투 리브’는 공통적으로 게이들의 섹스 장면을 리얼하게 보여준다. 이들 외국 영화보다는 덜 하지만 장안의 화제작 ‘왕의 남자’도 동성애적 상상력을 충분히 부추긴다. 문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끝없이 터부를 깨뜨리며 그 사회 혹은 시대의 최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어 왔지만, 영상을 매개로 하는 영화와는 그 파급력의 차원이 다르다.

‘와호장룡’을 만든 이안 감독이 ‘생의 정점에서 벗어난 최고의 걸작’이라는 수사가 동원되는 ‘브로크백 마운틴’은 미국 사회에서 1960년대부터 20여년 동안 서로 그리워 하며 몰래 탐닉하다가 죽음으로 인해 헤어진 두 남자의 러브 스토리다. 웅장한 산과 그 위로 물처럼 흘러가는 양떼를 배경으로 야영을 하며 양을 지키는 카우보이들의 사랑 장면이 펼쳐진다. 잭(제이크 질렌홀)과 에니스(헤스 레저)가 텐트 안에서 혀와 혀가 엉키며 뜨거운 키스를 나누는 장면은 노골적으로, 그들이 벌이는 섹스는 비교적 섬세하게 묘사된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 관객들 입장에서는 고개를 돌려 외면하기 십상인 충격적인 장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아프기만 한 사랑이다. 각자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진 다른 남자에게 가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남성끼리 사랑을 나누다가 성기를 적출당하고 머리가 으깨어진 채 변사체로 발견되어야만 했던 60년대 미국 사회의 풍토에서 그들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소수자’ 신세인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온 관객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되지만 적어도 정서적으로 몰입하기 쉽지 않을 터이다. 남성끼리의 노골적인 키스 장면에서 쑥스럽고 비위가 상해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관객도 보였다.

‘타임 투 리브’는 말기암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 받은 남자의 이야기다. 죽음을 앞둔 사진작가 청년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마음의 여로가 빠른 속도와 시적인 묘사로 전개된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에게만 시한부 인생을 귀찮히고 다른 가족과 애인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면서 의도적으로 그들과 정을 떼려 한다. 유년기의 추억과 상처가 오버랩되면서, 영화 속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비쩍 말라가는 주인공 남자(멜빌 프포)의 죽음의 외피는 쓸쓸하다. 석양과 바다와 어둠으로 모자이크된 생의 마지막은 특히 인상적이다. 남자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찾아드는 어둠의 시각을 좇아 스크린도 중국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으로 덮이고 그 위로 엔딩크레디트가 올라간다.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을 대신한다.

이 영화는 ‘브로크백 마운틴’이 정면에서 심각하게 다룬 동성애자의 아픔을 일상의 사소한 배경으로 소화하고 있다. 사진작가 남자의 연인은 남자이고, 그들의 동성애는 통상적인 연인 그 이상의 의미로 취급되지 않는다. 죽음보다 심각한 것은 없겠지만, 적어도 시한부 인생 설정으로 인해 가벼워 보이는 동성애가 아니라, 프랑스와 미국 사회의 문화적 질감 혹은 접근 방식의 차이처럼 보인다.

동성애는 이미 생물학적 다양성의 하나로 용인받아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동성간의 결혼이 합법화되었고, 미국의 경우 10여개 주에서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추세이다. 소수자의 ‘인권’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다. 오래된 이론처럼 예술은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인지, 아니면 복잡회로의 현대사회에 이르러 자극의 무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산업의 종속물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두 편의 영화를 보고 나니, 앞으로는 동성끼리의 스킨십이 이전보다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 같다. 자연스러운가?

2-5. “왕의 남자”,

중앙일보, 2006년 1월 23일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을 천박한 욕망이자 생식 수단으로 업신여겼다. 소크라테스도 아름다운 청년 알키비아데스를 사랑했다고 한다. 미셸 푸코는 "당시 지식인 사이에서 최고의 사랑 표현은 동성애"라고 단언한다. 아테네에서 미소년은 당연히 숭배 대상이었다. 그리스 신화의 '얼짱' 아도니스와 나르키소스가 그런 인물이다. 너무 아름다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미소년들이다.

동성애 잣대는 시대마다 다르다. 중세 때에는 신의 섭리를 벗어난 범죄였다. 교회법으로 엄하게 다스렸다.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76년 동성애 혐의를 받았다. 그는 외모를 기준으로 제자를 뽑기로 유명했다. 젊고 예쁜 제자들 중 제대로 된 예술가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부터 다빈치에 대한 투서는 꼬리를 물었다. 지금도 모나리자를 비롯한 그의 걸작에는 동성애 의혹이 여전하다.

최근 동성애 논쟁은 칩팬지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유인원진화 과정을 분석한 명저 '털 없는 원숭이'나 '이기적인 유전자'는 칩팬지 세계를 철저히 권력 투쟁이 지배하는 사회로 묘사한다. 칩팬지 수컷은 권력과 피에 굶주려 있다. 칩팬지 세계는 성(性) 또한 엄격한 위계질서로 짜여 있다.

그러나 1997년 미 에모리대 프란스 드 윌 교수는 보노보 원숭이(피그미 칩팬지)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소개했다.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 원숭이는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이성애(異性愛)나 동성애를 가리지 않는다. 이들에게 성관계는 생식을 넘어 평화를 유지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최근 영화 '왕의 남자' 돌풍이 거세다. 연산군과 광대 사이의 동성애가 줄거리를 이룬다. 의학적으로 그 원인이 완전히 규명되기도 전에 동성애는 어느새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직도 동성연애자의 군입대나 동성애 영화 상영을 놓고 주(州)마다 입씨름을 벌이는 미국과는 대조적이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과학자들은 이미 타조, 갈매기, 도요새, 돌고래 등 470종 이상의 동물에서 동성애를 관찰했다. 지금도 뉴기니의 일부 부족은 아들에게 동성애를 유도한 뒤 성인식을 치른다. 그러나 '왕의 남자' 영화처럼 여자보다 더 예쁜 남자에게만 눈길을 빼앗기는 게 걱정이다. 자칫 외모 지상주의로 흐를 수 있다. 남성의 외모집착증을 아도니스 콤플렉스, 지나친 자기 사랑은 나르시시즘이라 한다. 둘 다 치료 받아야 할 심각한 정신질환이다.

단체 및 사업 소개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레즈비언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맞서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를 전신으로 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한국 사회 레즈비언의 독자적인 권리 운동을 추구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레즈비언 억압의 토대인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에 반대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사업, 레즈비언 대상 각종 범죄의 예방 및 사건 지원, 자긍심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한 교육, 타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레즈비언 권리 운동, 레즈비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운동,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실천적 인권운동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1994년 11월 〈끼리끼리〉의 발족을 시작으로 하여 레즈비언 인권운동은 10여 년간 진행되어 왔고, 최근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형성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레즈비언의 존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레즈비언을 향한 폭력은 더욱 거세지고,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차별도 심각합니다. 여전히 이 사회에는 레즈비언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무시나 편견, 왜곡이 팽배한 것입니다.

레즈비언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동성애자로 이중의 억압에 처해 있습니다. 정체성 혼란, 커밍아웃과 아우팅의 문제, 독립의 문제, 교제의 문제,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 레즈비언이 직면하고 있는 괴로움은 너무나 많고 심각합니다. 많은 레즈비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개개인의 레즈비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털어놓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줄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개개인의 레즈비언의 고민을 모아 레즈비언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공간 역시 꼭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한국 최초의 독자적인 레즈비언 상담소로서,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레즈비언을 억압해온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 및 이에 근간한 제도에 대항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간사가 상근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게시판상담, 이메일상담, 면접상담, 내방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굳건히 연대하며, 개개인 레즈비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레즈비언을 향한 모든 차별과 억압의 종식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II 인권정책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인권정책팀입니다.

인권정책팀은 상담소에 접수된 구체적인 상담 사례를 통해, 현재 레즈비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이익, 차별과 혐오범죄의 유형이 무엇인지 분석합니다. 이를 레즈비언 인권 이슈로 발굴해 법 제도적 대안 책을 제시하고 공론화합니다.

인권정책팀은 이성애제도를 근간으로 한 가족제도 및 노동시장, 교육환경 등에서 레즈비언 인권이 억압당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 정책 및 대안을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성소수자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 논의하고 입장을 표명합니다.

인권정책팀은 레즈비언 대상 혐오범죄와 차별 관련한 상담사례들을 분석해, 개념을 정립하고 차별금지법 등 대책을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연령별, 지역별 레즈비언들의 삶의 실태와 문화, 그리고 인권현황을 점검하고, 레즈비언 인권정책을 발굴하며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인권정책팀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미디어 관련 사업 연혁

■ 1994년

11월 | 끼리끼리 발족 (회원 5명)

■ 1996년

08월 | 한겨레 21 항의방문과 반박문 게재(동인협)

10월 | SBS 송지나의 취재파일(끼리끼리 회원 출연)

12월 | 끼리끼리와 레스보스가 연예영화신문을 언론중재위에 고소

■ 1997년

01월 | 연예영화신문 보도 정정문 게재

07월 | 내일신문 주최 성교육강좌

07월 | "또다른세상" 초대의 글 <동성애에 대한 언론보도의 편파성>

■ 1998년

06월 | 동아일보 사진기자가 끼리끼리 회원들을 무단 촬영한 사건 발생

10월 | 한겨레신문 일본만화와 동성애에 관해 항의서한

■ 2001년

05월 |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연대

07월 | 인터넷 검열 및 등급제 반대를 위한 '퇴폐2등급?!' 파티 개최

■ 2002년

- 01월 | 경향신문사 GOODDAY 1월9일자 1면 '나, 레즈비언. 여자프로농구 용병 4명 충격' 기사 정정, 사과보도 요청
- 03월 |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연대 발족
- 04월 |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급거부 선언 기자회견
- 06월 | 인터넷검열반대 공대위 토론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참가
- 10월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팀의 공식사과 요구서 발송
- 10월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팀에 요구서 재발송

■ 2003년

- 04월 | '동성애자 죽이기'에 나선 국민일보를 규탄한다!' 성명서 발표
- 04월 | 국민일보는 동성애 혐오적 기사와 칼럼에 대해 각성하고 이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4월 25일까지 지면에 발표하라' 성명서 발표 (한국동성애자연합)

■ 2004년

- 01월 | '동성애와 에이즈에 관한 왜곡보도, 한겨레 신문을 규탄한다' 성명서

■ 2005년

- 04월 | <한국레즈비언상담소>로 단체 전환
- 05월 | '동성애 바로알기 강좌' 홍보 요청 -각 단체 및 언론사에 보도자료 발송
- 05월 | 포털사이트의 동성애자 권리침해 시정 요구 공문 발송 - '동성애', '이반' 키워드의 금칙어 및 성인인증 해제 요구

■ 2005년

- 06월 포털사이트의 동성애자 권리침해 시정 조치 수용되어 '동성애', '이반' 키워드의 금칙어 및 성인인증 해제됨
- 06월 '한겨레21 “나,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기사(2005년 6월 7일자 제562호)의 왜곡보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입장서 발표
- 07월 'MBC 뉴스투데이 허위보도 비판 자료집' 배포
- 07월 레즈비언 커뮤니티 대상 'MBC 측에 우리의 힘을 보여줍니다!' 캠페인 진행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 07월 '동성애 혐오 조장하고 청소년 동성애자를 버랑 끝으로 내몬 MBC의 반인권적 보도행태를 규탄한다!' 공동성명 발표
- 07월 <MBC10대이반관련허위보도비상대책위원회> 1차 회의 참여
- 07월 문화방송(MBC) <뉴스투데이> 10대 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범인권, 시민, 성소수자 단체 기자 회견 개최
- 07월 'MBC는 뉴스투데이 '이반 문화 확산' 보도가 반인권적이고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하라!' 공동성명 발표
- 07월 <MBC10대이반관련허위보도비상대책위원회> 2차 회의 참여
- 07월 <미디어 참세상>에 "성소수자 인권 후퇴시키는 주범, 너 언론이여! -MBC 뉴스투데이 '이반 문화 확산' 왜곡보도를 보고" 기고 (조이가현)
- 08월 <MBC10대이반관련허위보도비상대책위원회> 3차 회의 참여
- 08월 이화여대 대학원 신문 “MBC의 호모포비아 확산 만행” 기고 (공지훤)
- 0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MBC <뉴스투데이> 10대이반 관련 허위보도 진정 (MBC뉴스투데이 10대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10월 10월 'MBC <뉴스투데이> 10대이반 관련 허위보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각하됨 (MBC뉴스투데이 10대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2006년

- | | |
|-----|--|
| 05월 | AM7 ‘김경희의 웰빙섹스’ 3월 17일자 동성애혐오적인 기사에 대한
입장과 요구안, 삭제 조치 |
| 10월 | 언론대응사업 계획안 완성 |
| 10월 |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 종합일간지 ‘동성애’ 관련 키워드 검색
시작 |
| 12월 | 언론모니터링 1차 분석 완료 |

■ 2007년

- | | |
|-----|-----------------------------------|
| 03월 | 2006 레즈비언 보도 모니터링 자료집 발간 및 토론회 개최 |
|-----|-----------------------------------|

2006 레즈비언 보도 모니터링

레즈비언, 신문을 찢다

발행일/ 2007년 3월 30일

지은이/ 고리 나루 데조로 로마 아자

디자인/ 나루

펴낸곳/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인권정책팀

<http://lsangdam.org>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816호

전 화/ 사무 (02) 703-3542 상담 (02)718-3542

팩 스/ (02) 703-3543